

경복궁 녹산(鹿山)의 성립과 경관적 의의

이종근*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Landscape Meaning of Noksan in Gyeongbokgung Palace

Lee, Jong-Keun* · So, Hyun-Su**

*Doctorial Course, Graduate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Noksan is a green area in the form of a hill located inside Gyeongbokgung Palace, unrecognized as a cultural heritage space. This study analyzed the literature and the actual site to derive its landscape meaning by examining the background for the formation of Noksan and how it changed. As a result, the identity of Noksan was related to the geomagnetic vein, pine forest, and deers, and the following are its landscape meaning.

First, several ancient maps, including the 'Map of Gyeongbokgung Palace,' depicted the mountain range continuing from Baegaksan(Bugaksan) Mountain to areas inside Gyeongbokgung Palace, and Noksan is a forest located on the geomantic vein, which continues to Gangnyeongjeon Hall and Munsojeon Hall. On Bukgwoldo(Map of Gyeongbokgung Palace), Noksan is depicted with Yugujeong Pavilion, Namyego Storage, office for the manager of Noksan, the brook on north and south, and the wall. It can be understood as a prototypical landscape composed of minimal facilities and the forest.

Second, the northern palace walls of Gyeongbokgung Palace were constructed in King Sejong's reign. The area behind Yeonjo(king's resting place) up to Sinmumun Gate(north gate of the palace) was regarded as the rear garden when Gyeongbokgung Palace was constructed. However, a new rear garden was built outside the Sinmumun Gate when the palace was rebuilt. Only Noksan maintained the geomantic vein under the circumstance. However, the geographical features changed enormous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hen they constructed a huge official residence in the rear garden outside the Sinmumun Gate and the residence of the governor-general and road in the site of the Blue House. Moreover, Noksan was severed from the foothill of Baegaksan Mountain when 'Cheongwadae-ro(road)' was constructed between the Blue House and Noksan in 1967.

Third,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forest, which became the origin of Noksa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geomantic state of the northeastern side of Gyeongbokgung Palace, the naecheongnyong area in geomantic terms(the innermost 'dragon vein' among the veins that stretched out from the central mountain toward the left side), and they planted pine trees to reinforce the 'ground vein' and the fact that it was expressed as the 'Pine Field'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pine forest, mixed with oaks, cherries, elms, and chestnuts, identified through the excavation investig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original vegetation landscape. Noksan's topography changed; a brook disappeared due to mounding, and foreign species such as acacia and ornamental juniper were planted. Currently, pine trees' ratio decreased while the forest is composed of oaks, mixed deciduous trees, some ailanthus, and willow.

Fourth, the fact the name, 'Noksan,' came from the deer, which symbolized spirit, longevity, eternal life, and royal authority, was confirmed through an article of The Korea Daily News titled 'One of the seven deers in Nokwon(deer garden) in Gyeongbokgung Palace starved to death.'

Key words: Deer, Rear garden, palace wall, Vein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 hssso@uos.ac.kr

국문 초록

녹산은 경복궁 내부에 위치한 구릉 형태의 녹지로서 문화재공간으로 주목받지 못한 장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녹산이 성립된 배경과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경관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실록, 지도류, 사진에 대한 문헌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녹산의 정체성은 풍수적 내맥(來脈), 소나무림, 사슴과 관련되며, 경관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복궁전도』 외 다수의 고지도에는 백악으로부터 경복궁 내부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들이 묘사되었는데, 그중에서 녹산은 강녕전과 문소전으로 이어지는 내맥에 위치함으로써 형성된 숲이다. 북쪽도상에서 녹산에는 육우정(六隅亭), 남여고(藍輿庫), 녹직처소(鹿直處所), 그리고 남북 방향의 어구와 담장이 표현됨으로써 최소한의 시설과 숲으로 구성된 원형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세종대에 경복궁의 북쪽 궁장이 건설되었으며, 경복궁 창건 시기에 연조 뒤쪽부터 신무문 안쪽을 후원으로 인식했던 반면에 경복궁 중건 시기는 신무문 밖에 새로운 후원 영역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녹산만 내맥의 산줄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신무문 밖 후원에 대규모 관사가 건립되고 경무대 부지에 총독관저와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형이 크게 변화되었다. 여기에 1967년 청와대와 녹산 사이의 청와대로가 신설되면서 녹산은 백악산록과 단절되었다.

셋째, 내청룡에 해당하는 경복궁 북동쪽의 풍수적 형세가 부족하여 소나무를 심어 지맥을 배양하였던 점과 임진왜란 이전 경복궁 배치도에 ‘소나무밭(松田)’이라고 표현된 사실에서 녹산의 원형이 된 숲의 주요 성상을 파악하였다. 발굴조사로 확인한 상수리나무, 벚나무, 느릅나무, 밤나무가 어우러진 소나무림을 원형 식생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녹산에는 성토로 인하여 어구가 사라지는 등 지형이 바뀌고 아까시 등 외래수종과 관상용 향나무 등이 식재되었다. 현재는 소나무림의 비중이 줄고 상수리나무림, 낙엽활엽수혼효림, 일부 가죽나무림과 버드나무림으로 구성된 숲을 이루고 있다.

넷째, ‘녹산(鹿山)’이라는 명칭이 신령, 장수, 영생, 왕권을 상징하는 사슴으로부터 유래된 사실을 ‘경복궁 녹원에서 기르던 사슴 일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굶어죽었다’는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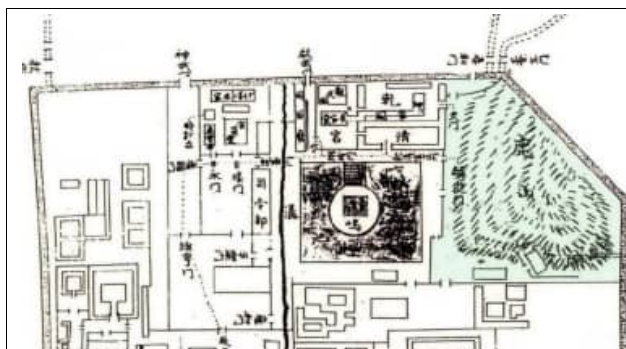
주제어: 궁장(宮牆), 내맥(來脈), 사슴, 후원(後苑)

1. 서론

녹산(鹿山)은 경복궁의 북동쪽에 위치한 구릉 형태의 녹지인데 문화재공간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녹산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시신이 불태워진 장소로 알려졌다(그림 1).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을미사변 관련 기록¹⁾을 제외하고는 녹산에 대한 서지적 자료가 없다. 녹산을 ‘인공으로 조성한 조산’이라고 기술하였는데^[3], 평지에 인위적으로 토사를 쌓아 만든 곳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또한 ‘녹산은

창덕궁 비원의 수림 같은 자연스러운 원림이 조성된 공간’이라고 기술되었다^[4].

녹산은 현재 경복궁 내에서 규모가 있는 자연스러운 녹지로서 경관적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녹산에만 집중한 선행연구는 없으며, 정(2004)이 ‘건청궁은 주변에 많은 부속 건물들과 향원지, 녹산 등의 원유공간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녹산의 현황과 녹산 영역 발굴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5]. 정(2015)은 아미산의 용맥(龍脈)이 경복궁 궁장 밖에서 녹산을 거쳐서 흘러왔다고 기술함으로써^[6] 본 연구에서 백악산록의 내맥(來脈)으로 녹산의 성립을 이해한 사실과 관련된다. 또한 같은 연



a. 명성황후 시신이 불태워진 위치가 표현된 녹산^[1]



b. 명성황후 살해 후 불태워진 시신이 있던 곳에 세워진 구조물^[2]

그림 1.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지도와 사진

구에서 경복궁의 창건기와 중건기 후원의 공간적 특성과 구성 원리를 규명하였는데, 녹산을 경복궁 후원과 연관지어 고찰하는데 참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인공 조산이나 건천궁의 배경림으로 이해하기도 했던 녹산에 대하여 그 성립된 배경을 파악한 후 경관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사슴산'이라고 명명하게 된 근거를 고찰함으로써 녹산의 경관적 의의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녹산은 건천궁의 동쪽, 옛 선원전이 있었던 민속박물관의 북쪽에 위치한다. 경복궁 북쪽 경계 담장과 청와대 부속 공간 사이에는 20m 폭원의 왕복 4차선 청와대도가 놓여있다(그림 2a). 녹산의 면적은 약 19,865㎡이며²⁾ 담장 내부에 평균 해발고 35~48m, 경사도 10~25%를 이루는 구릉 지형으로 구성된다[7].

북궐도형에는 녹산 일대에 육각지붕의 육우정(六隅亭), 녹산 관리인의 공간인 녹직처소(鹿直處所)와 가마를 보관하는 시설인 남여고(藍輿庫)가 있었고, 남북방향으로 어구(御溝)와 그 양쪽에 담장이 표현되었다³⁾. 그 밖에 북쪽 궁장에 설치된 암문(暗門)인 광무문(廣武門)과 남동쪽 담장에는 영선문(永善門)을 비롯한 3개의 문이 있었다(그림 2b). 녹산은 가운데 어구로 인하여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어구 서쪽 공간은 녹산 서쪽 경계 담장의 인유문(麟遊門), 봉집문(鳳集門)에서 북쪽 궁장에 설치된 암문(暗門)인 광무문(廣武門)과 무녕문(武寧門)을 통과하여 궁장 뒤편 후원으로 연계되며 시설물이 설치된 영역이다. 반면 어구 동쪽은 숙경재(肅敬齋)에서 연결되는 덕풍문(德豐門), 선원전(璿源殿)에서 연계되는 어소문

(於昭門), 어구 공간에서 연결되는 영선문(永善門)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북쪽과 동쪽의 궁장에는 문이 없는 폐쇄적 공간으로서 녹지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녹산의 원형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훼손, 멸실되어 현재는 광무문과 담장을 따라 화강석 보도만 존재한다. 녹산 원편에 자선당 유구가 있으나 1995년 12월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것이므로 녹산과 역사적 접점은 없다. 현재 건청궁과 자선당 유구는 관람객에게 공개되지만 녹산은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녹산이 경복궁에서 지닌 경관적 의의를 조명하기 위하여 경복궁의 입지 특성과 후원 영역의 변화에 착안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을 녹산의 성립과 녹산의 경관 변화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녹산이 성립되는 근간은 백두대간과 연결된 땅의 흐름을 중시한 전통적 자연관과 그에 상응하는 풍수지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백두대간의 흐름을 이어받은 삼각산을 주산으로 하는 백악산 앞에 자리잡은 경복궁의 입지에 대하여 문헌기록과 고지도에 시각적으로 묘사된 사실을 통해서 녹산의 성립 배경을 이해하였다.

녹산의 경관 변화는 토지이용, 식생, 사슴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경복궁의 토지이용 중에서 후원이 시기별 운용 양상에 의하여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북쪽 궁장의 물리적 경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이 녹산의 경관 형성에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임진왜란 이전 창건시기, 고종 당대 중건시기, 일제강점기 이후로 나누어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창건시기는 『조선왕조실록』과 고지도를 고찰하고, 중건시기는 『고종실록』, 『북궐도형』, 『영건일기』, 『궁궐지』를 참조하였다.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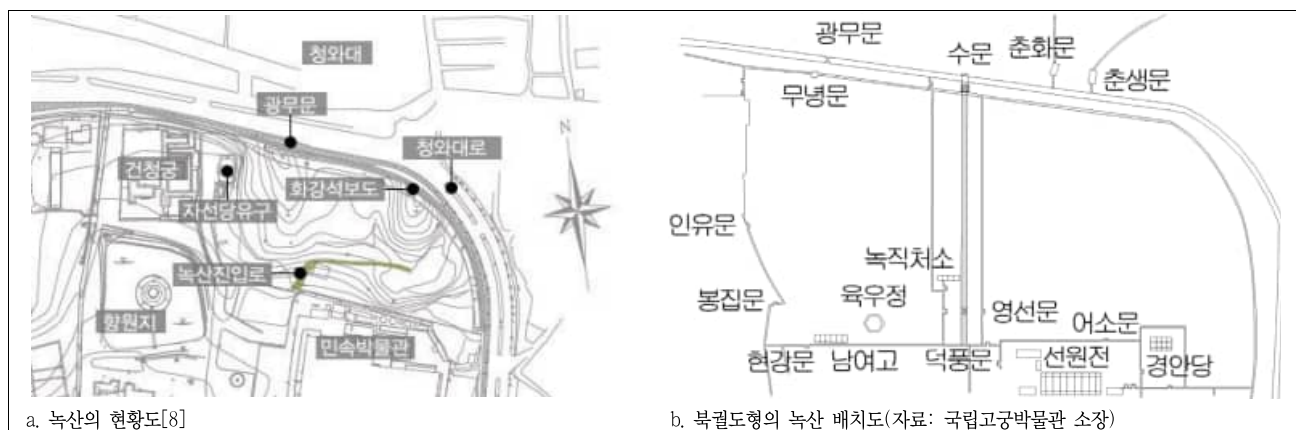


그림 2. 녹산의 현황도와 북궐도형의 배치도

이후는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 '조선총독부 박물관 유리전판' 사진과 '조선총독부 경복궁 부지평면도', '경복궁 경역 편입도', 국토지리정보원의 구지도,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둘째, 녹산의 원형 식생경관을 유추하고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녹산은 백악의 식생을 기반으로 한 풍수적 측면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조선왕조실록』과 『경복궁 도면』,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녹산의 식생을 확인하였다. 1970년대 이후의 녹산 정비공사 기록과 1990년 이후 발간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녹산 식생의 변화상을 파악하였으며, 2020년 7월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현재 숲의 성상을 정리하고 과거의 원형 식생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셋째, 녹산이라는 지명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사슴을 애완했던 왕실 문화와 관련된다는 사실과 함께 사슴이 부여받은 상징성과 사슴과 관련된 문화를 『삼국사기』, 『사문유취후집(事文類聚後集)』,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정리하였다. 한편 녹산의 사슴에 대한 실체적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기사로 확인하고 사슴의 서식환경으로서 녹산을 이해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경복궁 내맥(來脈)으로서 녹산의 성립

예로부터 백두산은 민족정신의 근원으로 여겨졌는데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산악의 조종(祖宗)이자 왕조의 발상지로 신성시되었다[9]. 백두산의 생명력이 백두대간을 통해 전 국토로 연결되고 이것은 삼각산으로 이어져 국가의 수도인 한양에 이른다고 인식하였다. 삼각산은 백악산의 주산(主山)이며 백악의 산줄기는 정궁인 경복궁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경복궁이 백두산의 정기가 흘러들어오는 혈치이자 명당이라는 사고로 귀결된다. 주산에서 뻗어온 산맥을 풍수지리에서 내맥(來脈)⁴⁾이라고 한다. 백악의 내맥은 경복궁에 생기를 공급하는 통로라는 상징성을 가지므로 내맥을 절토하거나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의도는 경복궁 원묘(原廟)의 입지를 고르기 위한 토론 내용인 『세종실록』 14년 기사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3. 지도와 사진에 표현된 경복궁의 내맥[1]

"이땅은 정용맥(正龍脈)이 아니니 용맥을 손상할 이치(理致)가 없고, 신의 앞이니, 불의 뒤편이니 하는 것은 사신(邪神)을 말하는 것이지, 어찌 종묘의 신과 같은 신을 말한 것이겠는가. 더군다나 백악(白岳)의 신은 바로 궁궐에 임하고 있으니, 이것은 신의 앞이 아닌가. 만약 신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한다면 마땅히 백악의 신도 옮겨야 하겠다."하니, 중언이 말하기를, "이 땅은 다만 궁궐을 굽어보며 누르는 형세일 뿐 아니라 주산의 내맥(來脈)을 파괴 손상하는 것이니, 비록 한 간의 초가를 짓더라도 오히려 좋지 못한 것인데, 하물며 깊고 넓은 큰 집을 짓는다면 뵈아서 용맥을 파괴하지 않겠는가. (『세종실록』 55권 14년 1월 15일)

한편, 조선의 고지도에는 삼각산에서 흘러 백악으로 연결되어 경복궁 내부로 들어오는 내맥을 네 개 혹은 한 개로 묘사하였는데(그림 3a-d), 한 개로 표현한 것은 주된 내맥의 위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복궁 『영건일기』 5월 2일 기록에서 '상원 담장 밖의 세 기슭은 하나는 신무문의 후록(後麓)이고, 하나는 교태전의 후록이며, 하나는 문소전의 후록이다⁵⁾'라고 내맥의 숫자를 세 개로 제시하였다. 1930년대에 작성된 '조선총독부(경복궁)부지 평면도(그림 4c)'는 내맥을 등고선으로 표현하여 『영건일기』 기록을 증명한다. 또한 『세종실록』 30년 기사는 백악의 내맥 중 두 개가 녹산을 지나 하나는 강녕전의 주산이 되고, 다른 하나는 문소전의 주산이 된다고 인식하

였다⁶⁾. 따라서 강녕전으로 흐르는 서쪽과 문소전으로 내려온 동쪽의 내맥 일부가 녹산의 영역을 구성한 것이다. 두 개의 구릉 사이에 자연적으로 골짜기가 생성되는데 이 물길을 정비하여 어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녹산은 이러한 내맥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를 유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구릉 형태이다(그림 4f). 따라서 창덕궁과 달리 경복궁은 평지에 입지하였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해이며, 녹산이 독립적인 구릉 형태를 보임으로써 조산이라고 해석한 오류도 바로잡아야 한다.

2. 녹산의 경관 변화

1) 토지이용

(1) 경복궁 창건시기

태조 6년(1397)에 이르러 경복궁 궁실의 공사가 일차적으로 완료되었다. 준공 당시 광화문, 건춘문, 영추문이 건립되고 궁성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북문을 두고 목책을 설치했다⁷⁾'는 『세종실록』의 기사를 통해 북쪽만 일정기간 가설(假設)로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북쪽 궁성을 쌓으면서 문을 폐쇄하여 경복궁의 궁장은 북문이 없는 상황이었다가 세종 15년 7월에 이르러 북문을 재설치한다⁸⁾. 하지만 당시 북성문 주변 궁성은 낮은 토담이었므로 자주 무너져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만들어졌다. 세종 23년, 술자(術者) 고중안(高仲安)은 사람들이 강녕전과 문소전의 주맥을 밟



그림 4. 경복궁 후원과 녹산의 지형 변화

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행인의 동선을 서쪽으로 유도하고 북쪽에 높은 담장을 설치하자고 세종에게 간하였다⁹⁾. 이때 기존 토담은 궁궐에서 거리가 멀지 않았으므로¹⁰⁾ 새로운 궁장은 북쪽으로 1백50여 보¹¹⁾ 떨어진 곳에 신설하였다. 이후 고종 2년(1865) 경복궁이 증건될 때까지 북쪽 궁성의 위치가 변화하는 공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증건 이전의 북쪽 궁장은 세종 23년에 고착되었다고 판단된다. 경복궁 선원전이 세종 20년에 옮겨지고 녹산은 선원전 배후에 위치하므로 북쪽 궁장 신설로 경복궁 내부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복궁은 『주례고공기』에 따라서 외조, 치조, 연조로 구성하였고 연조 공간 뒤편에 문무과 등용, 신하나 사신 인견(引見) 등 연회(宴會), 강무(講武), 제례(祭禮), 권농(勸農) 및 관경(觀耕), 임금의 유식(遊息) 등을 수행할 후원을 마련하였다[11]. ‘새 대궐 후원에 연못을 팠다¹²⁾’, ‘밤에 부엌이가 경복궁 북원에서 울었다¹³⁾’, ‘후원에서 기르던 들짐승을 빈 넓은 땅에 내놓게 하였다¹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연조 북쪽에 후원, 북원으로 불렸던 초기 형태의 후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경도편’ [원유]에서 ‘경복궁 후원에는 서현정, 취로정, 관저전, 충순당이 있다’라는 기록과 임진왜란 이전 경복궁 추정 평면도를 이용하여 경복궁 창건 시기 후원으로 인식했던 영역을 추정하였다. 창건시기 후원은 경회루를 포함한 연조 뒤편에서 북쪽 궁장에 이르는 영역으로 보았으며(그림 4a), 녹산도 후원에 포함된다. 당시 신무문 밖

공간은 『숙종실록』에 의하면 후원에 편입되지 않는다¹⁵⁾.

(2) 경복궁 증건시기

고종은 정치적 권력 행사와 왕실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경복궁을 증건하였으며[14],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전각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어진 봉안을 목적으로 향원지 북쪽에 건청궁을 조성하고, 왕실의 상장례를 위해 태원전, 문경전, 회안전을 북서쪽에 건축하였다. 이로 인하여 창건시기 후원의 공지 대부분에 전각이 들어섰다. 이때 녹산의 숲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고종 당대에도 내맥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인식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청궁을 내맥의 훼손이 없는 산줄기 왼쪽 공지에 건축하였다. 하지만 강녕전 내맥은 1914년 9월부터 1915년 3월까지 이어진 일제의 토목공사로 인해 훼손되었다[15]. 경복궁 증건 시 대규모 건축, 토목사업에도 내맥은 보호한 환경에서 녹산은 적극적으로 보존되었다. 둘째, 녹산에 전각이 자리잡지 않은 이유를 선원전과의 관계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왕실 사당으로서 신성성을 가진 선원전 후면부에 건물을 세우기 어렵다. 녹지처소, 남여고, 육우정 등 녹산에 설치된 최소한의 시설도 선원전의 축과 빗겨난 원편에 위치한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한다.

한편, 사용 영역을 넓히면서 궁궐의 중심이 북쪽으로 변화되자, 고종은 신무문 밖에 새로운 후원 공간을 마련하고 불규칙한 형태의 궁성을 쌓았으며(그림 4b), 기존 경복궁 4대문과 궁



a. 경복궁 신무문[18]



b. 경복궁 계무문[18]



c. 경복궁 북쪽 궁장과 춘생문[18]



d. 춘생문이 철거된 경복궁 북쪽 궁장[1]



e. 현재의 경복궁 북쪽 궁장 뒤편 청와대로



f. 1967년 경복궁 경역을 편입하여 조성한 도로[7]

그림 5. 경복궁 북쪽 경계부의 변화

성 공사를 진행하였다. 옛 성벽을 허문 후 궁장을 재설치하였는데 '금위영에서 쌓은 성지(城址)는 이미 양쪽 산기슭을 넘어가 있는데다가 연결할 길로도 길이 준공이 멀었다'¹⁶⁾는 기록을 통해서 내맥의 지형을 따라 성을 쌓았기 때문에 다른 구간보다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이다. 북쪽 궁장에는 중건시기 후원과 건청궁, 녹산을 연결하는 암문인 광무문과 계무문이 있다. '신무문 동쪽에 성을 철거하고 계무문을 설치하였다'¹⁷⁾는 사실에서 중건 당시 궁장과 성문을 그대로 개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녹산은 궁장 내부에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3) 일제강점기 이후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전방위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중건시기 후원과 녹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자 관리로 동용된 일본인들을 위한 관사들이 서울 곳곳에 지어졌다. 1926년과 1929년에는 경복궁의 서북쪽 담장 안쪽과 중건기 후원 영역의 경농재 남쪽 농경지에 대규모 관사가 건립되었다(그림 4d). 이 때까지 신무문 뒤편 좁은 흙길이(그림 5a) 계무문을 지나 춘생문까지 이어졌다(그림 5b). 1938년 경무대 부지에 총독관저가 들어서면서 북악산 방향으로 진입로가 개설되었다(그림 4d). 해방 이후 총독관저 자리에 청와대가 입지하면서 신무문 북쪽 후원은 훼손되었다(그림 4e).

춘생문은 녹산에 면한 북쪽 궁성에서 중건시기 후원을 연결하는데 백악의 가장 오른쪽 내맥의 높은 지형에 위치하였다. 1920년대 사진으로 춘생문이 철거된 이후 건춘문으로 향하는 길이 수십 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백악의 수림이 녹산과 연결되었다(그림 5d). 현재 이곳에는 궁정동에서 팔판동으로 이어지는 청와대교가 배치되었다. 1967년 민속박물관 정문부터 동북측까지 419.1m를 훼손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복궁 영역을 도로로 편입하여 만들었다. 신무문부터 계무문, 광무문까지 궁장에 맞닿아 설치된 도로는 녹산과 중건시기 후원의 녹지를 완전히 단절시켰으며(그림 5e), 경복궁 북동쪽 일대의 돌출한 경계부가 완만하게 바뀌었다(그림 5f).

(4) 경복궁의 토지이용과 녹산의 경관 변화

이상 경복궁 후원 영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경복궁 내맥의 일부였던 녹산이 경복궁의 북쪽 궁장과 후원 영역의 변화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점적 형태로 변화된 양상을 확인하였다. 녹산은 풍수이론에 따른 내맥의 보호 차원에서 관리되었으나 중건시기 후원 영역에 일제강점기 관사와 총독관저가 건설되고, 해방 이후 청와대가 입지하면서 대부분 녹지가 훼손되었다. 1920년 춘생문이 철거될 때 백악의 수림이 녹산과 연결되었으나 청와대로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지형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백악과 녹산은 경관적으로 완전히 단절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은 경복궁 토지이용과 녹산의 경관 변화를 창건시기를 대표하는 세종시기, 중건된 고종시기, 그리고 현재로 구분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그림 6).

2) 식생

다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경도상(京都上)'편의 삼각산에 대한 묘사이다.

“파주(坡州)에 멈추어 멀리 한성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기운이 높이 오른다. 이에 벽제(碧蹄)를 지나고 홍제(弘濟)에 오르면 여기가 왕경(王京)으로 동쪽에 우뚝 솟아 있으니, 높고 높은 삼각산(三角山)으로 자리를 정하였는데(삼각산은 곧 왕경의 진산으로 산세가 가장 높은데 왕궁은 그 산허리에 있다. 그 산마루를 바라보며 여러 높은 봉우리들이 마치 톱니와 같다.), 푸르고 푸른 소나무들로 뒤덮여 있다.”

소나무로 뒤덮여 있는 삼각산 주변 산림의 경관을 가늠할 수 있다. 소나무 위주의 식생 경관은 바위산 정상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소나무의 특성과 고려시대부터 주요 도시에서 연료와 개간의 목적으로 활엽수를 벌채한 후, 소나무를 선택적으로 식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20]. 이러한 인위적 식재는 조선시대 초기에도 중송정책(重松政策)으로 이어짐으로써 사람의 손길이 닿는 산기슭 주변에 소나무 경관이 발달하게 된다. 백악산록 하부에서 이어지는 경복궁 녹산 역시 소나무가 우점한 숲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경복궁이 풍수적 명당에 입지했다는 사실은 세종시기의 논의를 통해 증명된다. 그러나 내청룡의 산세가 낮고 약하여 풍수 형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보림을 조성하여 지맥을 배양하였는데 주 수종이 소나무이며 과목(果木)과 잣나무(栲)가 함께 식재되기도 하였다¹⁸⁾. 비보림 식재 구간은 장원서 북참(北站)에서 중학(中學)까지이며, 현재의 삼청동(三清洞)과 종로구 화동(花洞)까지로 추정되므로 녹산과 인접한 공간이다.

이렇게 자연적, 정책적, 풍수적 배경으로 인해 경복궁 초기 후원은 소나무 위주의 식생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뒷받침 할 자료로서 아미산 북쪽 후원 영역을 '소나무밭(松田)'이라고 표현한 지도가 있다(그림 7a). 이 지도는 '정해친잠(丁亥親蚕)'이 표시된 것으로 미루어 영조 이후 그려진 조선 초기 경복궁의 추정도인데, 당시 창건시기 후원이 소나무가 울창한 경관이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또한 가쿠슈인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가 소장한 사진(그림 7b)에서도 녹산이 소나무림으로 구성되었음을 실증한다. 육우정을 다른 각도로 촬영한 사진에서 낙엽활엽수림도 보이는데(그림 7c) 이는 녹산이 소나무 단일림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해방 이후 녹산의 식생 변화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최초의 경복궁 복원 관련 보고서인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1994)』에서 ‘경복궁이 너무 많은 변형을 거듭하였고, 고층없이 심어진 수목이 널려있다’고 기록하였다. 특히 녹산에 대해 느티나무, 갈참나무, 단풍나무 등 자생수종으로 구성된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일제강점기인 1911년부터 아까시를 비롯하여 노무라단풍, 뱃나무, 관상용 향나무 등이 식재되어 이미 교란된 상태라고 기술하였다. 2005년에 실시한 녹산지역 발굴조사는 현 지반으로부터 4.4m~5.0m 아래에 어구가 있음을 밝혔다. 녹산은 북쪽 궁장으로 막혀있으므로 자연적인 퇴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산 일대에 대규모 성토가 이루어졌으며¹⁹⁾ 이에 따라 기존 식생이 일부 훼손된 것이다. 발굴조사 시 유구층에서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상수리나무, 뱃나무, 느릅나무, 밤나무가 확인되었으므로, 녹산의 원형 식생경관은 느티나무, 느릅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뱃나무 등과 어우러진 소나무림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문화재청(2007)을 통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녹산에서 세 번의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음을 파악하였다[7][8]. 먼저 『녹산 주위 환경조성(1972)』은 ‘편백 등 6종 137주를 식재’했다는 개략 정보를 통해 편백나무가 본 공사의 주요 수종이라고 짐작된다. 그런데 편백나무는 히노키(ひのき, 檜·檜木)라고 불리는 일본원산지로 역사경관림에 적합하지 않다. 이듬해 실시한 『경복궁 녹산지역 조경 정비사업(1973)』은 공사금액이 12,420,000원이라는 정보 뿐 공사 내용을 알 수 없다. 원형복원에 초점을 둔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보고서(1994)』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조경공사는 진정성 있는 경관 조성보다 오히려 인

위적 간섭의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최근 실시한 『경복궁 녹산지역 조경 정비사업(2012)』은 아까시, 노무리 단풍과 같은 외래수종을 벌목하고 소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전통경관을 조성하려는 변화를 보였다. 이 사업 이후 녹산의 수목은 32종 612주가 분포되었고, 이중에서 소나무(280주)와 상수리나무(66주)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20년 7월 녹산의 식생 현황을 조사하였다. 10×10m 크기의 방형구를 차별성 있는 교목군 5개소에 설치하고 각 조사구의 교목과 아교목층, 관목층으로 구분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였다(그림 8). 그 결과 녹산은 상수리나무림(27.0%), 낙엽활엽수혼효림(26.1%), 소나무림(7.3%), 소나무식재지(7.3%), 기타 가죽나무림과 버드나무림으로 구성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이중에서 분포도가 높은 상수리나무림과 서어나무와 느티나무가 식재된 낙엽활엽수혼효림이 자연성 높은 숲을 이루었고 대표적인 대형목으로 서어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가 있다.

녹산의 경관은 회화나무 대경목의 나이테로 수령이 약 70년 정도라는 점을 통해 1950년 이후의 식생으로 형성되었으며, 소나무가 주를 이루었던 원형 식생경관에 비해 소나무림의 비율은 낮아지고 현재는 낙엽활엽수혼효림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그림 9). 또한 오랜동안 출입이 통제됨으로써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 칩 등 생태계 교란생물과 덩굴성 식물이 침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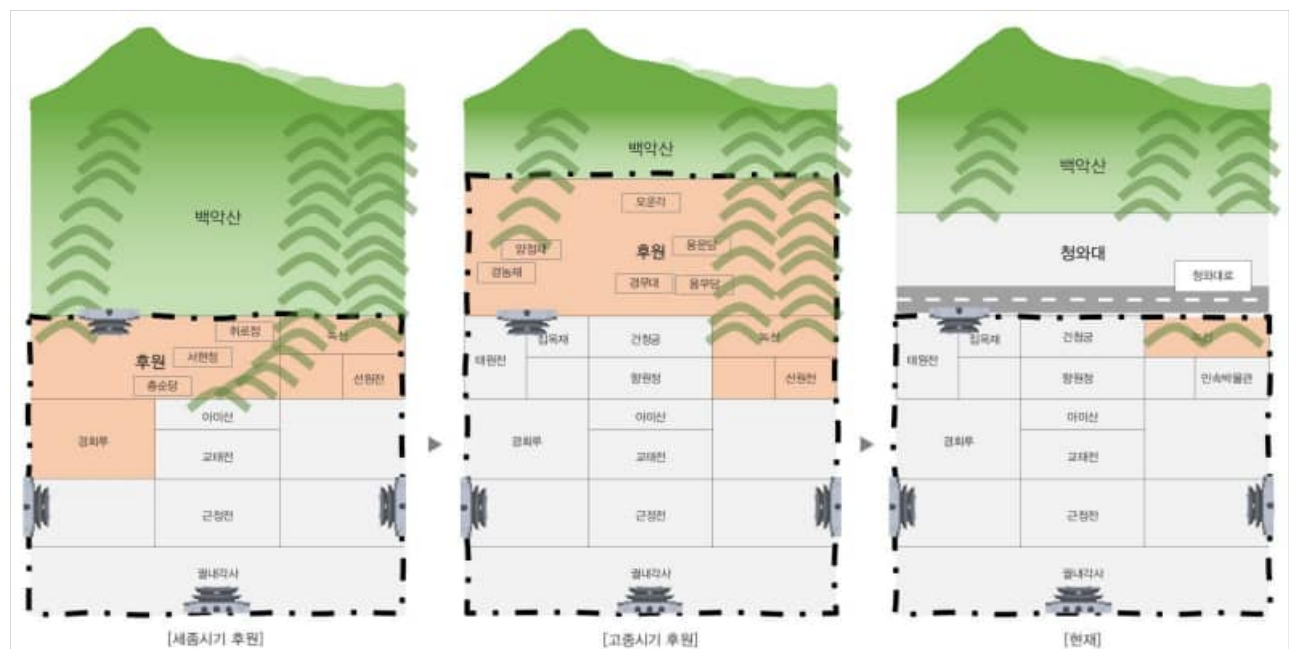


그림 6. 경복궁의 후원과 궁장을 통해 본 녹산의 경관 변화



그림 7. 녹산의 원형 식생경관



그림 8. 녹산의 현존식생도

3) 사슴의 서식처

장소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특정 문화를 지닌 의미있는 공간이 되며, 장소 정체성은 공통적인 문화나 상징적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다[2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복궁 북동쪽 구릉에 사슴이라는 특정 동물의 이름을 붙인 이유를 관습과 상징성으로 접근하여 밝히고자 한다.

예로부터 사슴은 미려한 외형과 온순한 성격을 가져 선령지수(仙靈之獸)라고 알려져있다. 무리지어 살면서 자리를 옮길 때마다 낙오 여부를 살피는 습성에서 연유하여 우애를 상징하고, 벼슬 '녹(祿)'과 사슴 '녹(鹿)'이 같은 음이기 때문에 관리의 벼슬을 상징하기도 하였다[23]. 『동명왕편(東明王篇)』의 '흰 사슴으로 하늘에 제사지낸다'는 기록을 통해서 사슴이 지상과 천상을 매개하며, 불멸의 신성한 순간을 포착해내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된 사실을 알 수 있다[24]. 또한 사슴은 학과 함께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영물이고, 불행과 질병을 막아주는 주술적 힘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삼국사기』에 사슴이 백록(白鹿), 신록(神鹿), 뿔이 3개 달린 사슴이라는 상서로운 존재로 기술되었는데[25] 이는 녹산 서쪽 경계 담장의 '인유문(麟遊門)'이라는 명칭에서도 확인된다[20].

『사문유취후집』에서 '사슴은 천년을 살면 창록(蒼鹿)이 되고 다시 백년이 지나면 백록(白鹿)이 되고 다시 오백 년이 지나면 현록(玄鹿)이 된다'고 하여 장수를 상징하였다. 봄에 새롭게 돌아나는 사슴뿔은 영생의 의미가 부여되어 사슴이 십장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원축록(中原逐鹿)'²¹⁾이라는 고사성어와 사슴뿔을 형상화한 신라 금관의 예로 임금 혹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한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녹포(鹿脯, 사슴고기로 만든 포), 건장록(乾獐鹿, 말린 노루고기와 사슴고기), 녹해(鹿醢, 사슴고기로 담근 젓)는 임금의 하사품이고, 종묘와 문소전의 제물로 바쳐졌다. 조선 초기의 갑옷인 쇠자갑(鎧子甲)의 안감에 사슴 가죽을 사용하는 등 쓰임새가 높았기 때문에 상림원에서 취급한 주요 공납 품목이었다. 『산림경제』,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에 사슴의 조리법과 저장법이 기술되었는데 민간에서 사슴을 상용 식품으로 이용한 것이다[27]. 이렇듯 사슴과 관련된 문화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사슴은 고대 반구대 암각화로부터 회화, 조각, 도자기, 장신구에 표현될 만큼 오랫동안 완호(玩好)되었다.

실제로 궁궐의 후원에서 사슴과 노루, 곰의 새끼, 원숭이, 코끼리 등 당시 진기하게 여겼던 동물들을 길렀다. 원숭이와 코끼리는 경복궁 서북쪽에 위치했던 사복시(司僕寺)에서 우리를 만들어 기른 것에 비해서, '노루와 사슴을 경복궁 후원에서 길렀다'²²⁾, '후원의 흰 사슴을 백악에 놓아 주도록 명하였다'²³⁾, '성묘(成廟)가 길들여 기른 사슴을 손수 쏘아 삶거나 구워서 먹었다'²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경복궁 후원에서 사슴을 길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사슴을 기른 '백악산 인근 후원'이 현재의 녹산과 동일한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고종실록(고종 32년)'²⁵⁾에 '녹산'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고 일본 영사 우치다의 왕비시해사건 보고서인 『한국 왕비 살해 일건』에 수록된 평면도(그림 1a)에는 녹산의



그림 9. 녹산을 구성하는 숲 경관

명칭과 위치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그리고 1908년 『대한매일신보』의 ‘경복궁 녹원에서 기르던 사슴 일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굶어죽었다²⁶⁾’는 기사를 통해 경복궁 녹산에서 사슴을 기르므로써 그 명칭이 연유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북궐도형에서 파악한 담장, 잘 가꿔진 숲, 수로가 있었다는 점은 녹산이 사슴의 서식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설명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경복궁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녹산의 성립 배경을 입지 특성으로 확인하고 식생과 사슴의 서식처로서 경관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경복궁 북동쪽에 위치한 구릉 형태인 녹산은 조산이 아니라 경복궁 내맥의 산줄기에 해당하는 녹지이다. 삼각산과 백악을 거쳐 경복궁 내부로 들어온 동쪽 2개의 내맥이 녹산 영역을 지나 강녕전과 문소전의 주산으로 연결되었다. 내맥으로 성립된 녹산은 지금까지 숲으로 잘 유지되었다.

둘째, 세종 23년 북쪽 궁장을 신축함으로써 백악산록과 녹산 사이에 물리적 경계가 만들어졌으며, 경복궁 중건으로 신무문 밖에 후원이 확보되었다. 일제강점기 후원에 관사와 총독관저가 들어서고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녹지가 훼손되었으며, 청와대로 건설로 녹산은 백악과 완전히 단절되고 경관적으로 점적인 녹지가 되었다.

셋째, 백악산록과 함께 비보 목적으로 소나무가 우점된 녹산은 느티나무, 느릅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뽕나무와 조화를 이룬 숲이었다고 추정된다. 1950년 이후

소나무림의 비율은 낮아지고 상수리나무림과 낙엽활엽수림의 분포가 높아졌다.

넷째, 녹산이라는 명칭은 『고종실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경복궁 후원에서 사슴을 길렀다는 『조선왕조실록』과 녹지처소, 인유문이라는 녹산의 경관요소와 함께 녹산에서 사슴을 길렀음을 밝힌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통해서 신령, 장수, 영생, 왕권 등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사슴과 녹산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문화에 의해 정의된 장소에서 그 위치, 활동, 주요 건물 등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장소성이 쇠퇴한다[22]. 녹산의 경우 백악산록과의 단절, 성토로 인한 지형 변화, 낙엽활엽수림의 비중이 높아진 식생 변화, 사슴의 부재로 인해서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특히 사슴을 길렀던 곳이라는 녹산의 장소성은 사슴의 서식환경으로서 경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 1) 『고종실록』 33권, 32년 11월 14일.

박선(朴銑), 이주회(李周會), 윤석우(尹錫禹, 1855~1895)를 을미사변의 관련된 피고인으로 교수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 선고문(判決宣告文)이다.

주 2) 녹산의 면적과 관련하여 『경복궁 변천사』에서 녹산과 태원전 사면의 면적을 21,058㎡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캐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산의 면적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 3) 녹산 공간이용행태와 관련된 육우정, 녹지처소, 남녀고의 시설 정보는 찾을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였다.

주 4) 풍수지리학에서 ‘맥(脈)’은 ‘용(龍)’이나 ‘산(山)’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내맥과 더불어 척맥(尺脈), 후록, 산줄기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주 5) 上苑牆外三麓一爲神武門後麓一爲交泰殿後麓一爲文昭殿後麓

- 주 6) 『세종실록』 121권, 30년 8월 4일.
 주 7) 『세종실록』 61권, 15년 7월 21일.
 주 8) 『세종실록』 92권, 23년 5월 21일.
 주 9) 주 6)과 동일한 기사.
 주 10) 원문에 ‘其長不遠’이라는 표현은 ‘궁장의 길이가 길지 않다’는 뜻인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뜻인지 모호하다. 그러나 백악(복쪽)을 향한다는 문맥상 기존 궁장과 거리가 가까워 선원전 뒤편으로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주 11) 세종 때에는 1보의 길이가 두 차례 바뀌었는데, 1430년(세종 12)에 종래의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 제도를 중국식 양전법(量田法)인 경도보법(頃畝步法) 제도로 고쳤다. 이때는 주척(周尺) 5척을 1보의 길이로 하였다. 그리고 1444년 이후에는 고려 때의 결부속파법 제도로 되돌아가서 주척 6척이 1보의 길이로 되었다[10].
 세종 23년의 기사는 1441년의 일로서 주척 5척을 1보의 길이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주척을 미터법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20.6cm이다. 따라서 1백50보는 약154.5m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 12) 『태조실록』 8권 4년 9월 29일.
 주 13) 『태조실록』 15권 7년 9월 10일.
 주 14) 『태조실록』 15권 7년 12월 23일.
 주 15) 신문문 밖의 후원은 고종대 경복궁의 중건시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조선 전기에 경복궁의 후원은 향원정 일대였다. 숙종대에 회맹제를 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경복궁에 들렀는데 이때 김수항(金壽恒)이 왕에게 아뢰는 내용 중에서 ‘경복궁의 북문 밖은 회맹단인데 삼청동에서 멀지 않은데도 후원에 들어있지 않다(숙종실록 6년 8월 29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북문 밖에 후원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13].
 주 16) 『영건일기』 병인년(1866, 고종 3년) 5월 17일.
 주 17) 『영건일기』 무진년(1868, 고종 5년) 6월 5일.
 주 18) 『성종실록』 125권 12년 1월 20일.
 주 19) 본문에서 서술한 다량의 성토는 1915년 미술관 건물 건축시기,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시기, 1988~1992년 개축시기 중 하나라고 추정되지만 연구가 더 필요하다.
 주 20) ‘인유(麟遊)’는 중국 고전 『회남자(淮南子)』 『남명훈(覽冥訓)』에서 ‘봉황이 조정에서 날고 기린이 교외에서 노닐었다’는 표현으로부터 인용됨으로써 상서로운 조짐이 드러남을 뜻한다[26]. 이때, ‘麟’은 기린 혹은 큰 수컷 사슴이라는 뜻을 지니므로, 인유문은 녹산에서 상서로운 사슴을 길렀다는 추정을 보완한다.
 주 21) ‘중원의 사슴을 쫓는다’는 뜻으로 제위를 다툼을 의미한다.
 주 22) 『태종실록』 32권, 16년 7월 3일.
 주 23) 『성종실록』 42권, 5년 5월 16일.
 주 24) 『중종실록』 1권, 1년 9월 2일.
 주 25) 『고종실록』 33권 32년 11월 14일.
 주 26)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12일 기사 3면 3단의 기사
 경복궁내 룽원에서 기르던 사슴 칠수중에 일수가 직작일에 즈뵈혔는디 그 리유인즉 원리 넉탕전으로 밍월에 두티갑을 차하히더니 거십이월과 일월량삭은 내탕전을 차하히지 아니하느고로 원직이가 즈당하야 먹엇더니 두태가 부족하야 주려죽은거시 분명함으로 직작일에 주면원에서 검사후에 위선돈 스원을 희원직의게 출급

히엿다더라.

REFERENCES

- [1] 문화재청(2006). 사진으로 보는 경복궁.
 [2]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Monument at palace, erected where the late Queen's body was burned after she had been killed.
 [3] 문화재청(2005). 경복궁 녹산지역 발굴조사보고서.
 [4] 문화재관리국(1994).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보고서.
 [5] 정중수(2004). 조선시대 궁궐원유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정우진(2015).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체제와 운용 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문화재청(2007). 경복궁 변천사(상).
 [8] 문화재청(2007). 경복궁 변천사(하).
 [9] 양보경(1997). 조선시대의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진단학보 83(-): 85-106.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11] 김현욱, 김용기, 최종희(2000). 조선왕조실록 분석을 통한 경복궁과 창덕궁 후원의 공간이용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3): 41-50.
 [12] 이정국(2011). 조선전기 경복궁의 침전과 후원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6): 131-146.
 [13] 이해원(2008). 경복궁 중건 이후 전각구성의 변화.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홍순민(2007). 고종대 경복궁 중건의 정치적 의미. 서울학연구소, 29(-): 57-82.
 [15] 정우진, 심우경(2012). 경복궁 아미산의 조영과 조산설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2): 72-89.
 [16] 국토정보지리원 홈페이지.
 [17]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고적·관사·사법·행형 등 일제시기 건축도면콘텐츠
 [18]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19]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청와대 기초현황조사서(2013).
 [20] 공우석(2000). 조선시대 이전의 식생 간섭사. 제사기학회지, 14(1): 33-48.
 [21]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홈페이지.
 [22] 에드워드 랠프 저, 김덕현 등 역(2005). 장소와 장소상식. 서울 : 논형.
 [23]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24] 박계옥(2004). 주몽신화에서의 홍수모티프 연구. 인문학연구, 32(-): 195-217.
 [25] 조법중(1998). 청산별곡에 나타난 새와 사슴의 한국고대 종교문화적 전통. 한국고대사연구, 14(-): 467-488.
 [26] 문화재청(2007). 궁궐의 현판과 주련. 서울 : 수류산방.
 [27] 김태홍(1997). 우리나라 사슴고기와 노루고기 조리법의 역사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3): 275-287.

원고접수일: 2020년 11월 3일
 심사일: 2020년 11월 13일 (1차)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13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